

자주와 존엄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으면 남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세계를 둘러보면 주권은 있어도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제 할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큰 나라의 간섭과 전횡에 눌려워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 민족들도 있다. 사회정치적혼란과 민족간, 종족간의 내전과 같은 비극적현실도 자주독립국가의 제일가는 생명인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결과의 발로이다. 자주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나라가 번영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은 력사의 진리이고 법칙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력사를 보아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지키지 못한탓에 《시일야방성대곡》을 목놓아 웨친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지구상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졌던 조선이 오늘 자주강국의 존엄을 떨치고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을 모시였기때문이다.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하신 정치신조였고 투쟁방식이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결하시였다.

일찌기 수령님께서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어 주체의 진리를 새롭게 밝혀내심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덤벼들었을 때 다른 나라의 싸움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의 새로운 전법을 제시하시어 위대한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시였다. 지난 세기 1960년대말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때에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땅우에서, 이 하늘아래에서 남녀로소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

맑고 푸른 이 나라의 하늘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후더욱게 달구어주는 노래이다. 길지 않은 노래가작에 모든 사람들이 제 경험고 또 실감하는 만단사연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는 극도에 이른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민족의 운명은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이고 세계의 이목이 조선반도에 집중되었던 말그대로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뜻깊은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보곤 한다.

1985년 3월 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73돐경축 제중대표단에 망라되어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나날에 보고 듣고 느낀 감동깊은 나날들은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조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주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사실 속으로 걱정도 없지 않았다. 홍콩강성의 한끝에서 살아오면서 조국동포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데다가 다른 지방의 공민들과도 익숙하지 못한 나였던것이다.

그런데 대사관에서 들어서니 한 녀성일군이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주며 무슨 일을 찾아왔는가고 친절하게 묻는것이였다. 처음으로 듣는 선생이란 말에 나는 몸둘바를 몰랐다.

어머니수령님탄생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제중대표단성원이라고 하자 그 녀성은 나를 한 일군의 방으로 안내하였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천명하심으로써 공화국의 자주적존엄을 수호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옷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조선식의 정당한 로선과 방식대로 풀어나가신 어머니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설수 있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한평생 견지하신 자주로선은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분열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조국통일방안들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어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수령님 이시다.

어머니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자주의 기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굳건히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성리로나 기존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수령님식대로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

제를 철두철미 자주적립장에서 대하시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

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는 것이 장군님께서 견지하신 투철한 자주적원칙이고 창조적립장이였다.

자주와 지배, 정의와 부정의, 른 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칠새없는 황홀한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그러기에 한 재미동포는 《진정 여기가 복인가? 바깥에서 조금만 더 조이면 금방 〈붕괴〉 된다고 하는 복이 맞는가?... 〈붕괴〉는커녕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조짐을 보이고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강하게.》라고 조국방문소감을 려놓았다.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더욱더 강대해 질것이며 이 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를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늘은 있어도 푸른 하늘 어디가 찾으랴
아 은혜론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 살리라

본사기자 리경순

떠날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국제렬차가 압록강을 건느는 순간부터 마치도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짜릿한 감을 느끼곤 한다. 평양역에 도착하여서는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왔다고 동포애의 정으로 뜨겁게 맞이하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일군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행복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나는 지금 궁지스럽게도 동포들의 믿음과 기대속에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전임일군으로 일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해외동포들은 비록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언제나 사회주의조국을 잊지 말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총련합회사업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



제를 철두철미 자주적립장에서 대하시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

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는 것이 장군님께서 견지하신 투철한 자주적원칙이고 창조적립장이였다.

자주와 지배, 정의와 부정의, 른 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칠새없는 황홀한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그러기에 한 재미동포는 《진정 여기가 복인가? 바깥에서 조금만 더 조이면 금방 〈붕괴〉 된다고 하는 복이 맞는가?... 〈붕괴〉는커녕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조짐을 보이고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강하게.》라고 조국방문소감을 려놓았다.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더욱더 강대해 질것이며 이 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를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늘은 있어도 푸른 하늘 어디가 찾으랴
아 은혜론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 살리라

본사기자 리경순

떠날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국제렬차가 압록강을 건느는 순간부터 마치도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짜릿한 감을 느끼곤 한다. 평양역에 도착하여서는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왔다고 동포애의 정으로 뜨겁게 맞이하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일군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행복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나는 지금 궁지스럽게도 동포들의 믿음과 기대속에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전임일군으로 일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해외동포들은 비록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언제나 사회주의조국을 잊지 말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총련합회사업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

영원한 사랑의 끊임나라

내 사는 집 창가에
동포사는 거리마다에
람홍색기발이 나뭇기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
그 기발 바라보는 나의 눈곱에
고여옵나다 뜨거운 눈물이

머리에 백발이 질어갈수록
눈물은 해피진다지만
9월의 아침
눈가에 젖어드는 이 눈물은
어저 나이타이겠습니까

어머니 가슴 파고드는 자식과 같이
조국으로 달려쳐가는 마음
이 마음에 뚫어번지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간절한 그리움의 분출입니다

생각은 깊어집니다
지켜주고 안아줄 품이 없어
이역의 찬바람에 정처없이 떠돌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흘렸습니까
그 누구도 닦아줄수 없었던
망국노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설움의 눈물을 뿌려도
그 설움 가셔줄 조국이 없었고
이역의 찬바람에 락엽처럼 떠돌아도
그 바람 막아줄 조국이 없었던
수난의 그 세월

아, 내 사는 마을에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영원한 사랑의 끊임나라

내 사는 집 창가에
동포사는 거리마다에
람홍색기발이 나뭇기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
그 기발 바라보는 나의 눈곱에
고여옵나다 뜨거운 눈물이

머리에 백발이 질어갈수록
눈물은 해피진다지만
9월의 아침
눈가에 젖어드는 이 눈물은
어저 나이타이겠습니까

어머니 가슴 파고드는 자식과 같이
조국으로 달려쳐가는 마음
이 마음에 뚫어번지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간절한 그리움의 분출입니다

생각은 깊어집니다
지켜주고 안아줄 품이 없어
이역의 찬바람에 정처없이 떠돌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흘렸습니까
그 누구도 닦아줄수 없었던
망국노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설움의 눈물을 뿌려도
그 설움 가셔줄 조국이 없었고
이역의 찬바람에 락엽처럼 떠돌아도
그 바람 막아줄 조국이 없었던
수난의 그 세월

아, 내 사는 마을에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영원한 사랑의 끊임나라

내 사는 집 창가에
동포사는 거리마다에
람홍색기발이 나뭇기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
그 기발 바라보는 나의 눈곱에
고여옵나다 뜨거운 눈물이

머리에 백발이 질어갈수록
눈물은 해피진다지만
9월의 아침
눈가에 젖어드는 이 눈물은
어저 나이타이겠습니까

어머니 가슴 파고드는 자식과 같이
조국으로 달려쳐가는 마음
이 마음에 뚫어번지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간절한 그리움의 분출입니다

생각은 깊어집니다
지켜주고 안아줄 품이 없어
이역의 찬바람에 정처없이 떠돌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흘렸습니까
그 누구도 닦아줄수 없었던
망국노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설움의 눈물을 뿌려도
그 설움 가셔줄 조국이 없었고
이역의 찬바람에 락엽처럼 떠돌아도
그 바람 막아줄 조국이 없었던
수난의 그 세월

아, 내 사는 마을에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영원한 사랑의 끊임나라

내 사는 집 창가에
동포사는 거리마다에
람홍색기발이 나뭇기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
그 기발 바라보는 나의 눈곱에
고여옵나다 뜨거운 눈물이

머리에 백발이 질어갈수록
눈물은 해피진다지만
9월의 아침
눈가에 젖어드는 이 눈물은
어저 나이타이겠습니까

어머니 가슴 파고드는 자식과 같이
조국으로 달려쳐가는 마음
이 마음에 뚫어번지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간절한 그리움의 분출입니다

생각은 깊어집니다
지켜주고 안아줄 품이 없어
이역의 찬바람에 정처없이 떠돌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흘렸습니까
그 누구도 닦아줄수 없었던
망국노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설움의 눈물을 뿌려도
그 설움 가셔줄 조국이 없었고
이역의 찬바람에 락엽처럼 떠돌아도
그 바람 막아줄 조국이 없었던
수난의 그 세월

아, 내 사는 마을에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영원한 사랑의 끊임나라

내 사는 집 창가에
동포사는 거리마다에
람홍색기발이 나뭇기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
그 기발 바라보는 나의 눈곱에
고여옵나다 뜨거운 눈물이

머리에 백발이 질어갈수록
눈물은 해피진다지만
9월의 아침
눈가에 젖어드는 이 눈물은
어저 나이타이겠습니까

어머니 가슴 파고드는 자식과 같이
조국으로 달려쳐가는 마음
이 마음에 뚫어번지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간절한 그리움의 분출입니다

생각은 깊어집니다
지켜주고 안아줄 품이 없어
이역의 찬바람에 정처없이 떠돌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흘렸습니까
그 누구도 닦아줄수 없었던
망국노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설움의 눈물을 뿌려도
그 설움 가셔줄 조국이 없었고
이역의 찬바람에 락엽처럼 떠돌아도
그 바람 막아줄 조국이 없었던
수난의 그 세월

아, 내 사는 마을에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영원한 사랑의 끊임나라

내 사는 집 창가에
동포사는 거리마다에
람홍색기발이 나뭇기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
그 기발 바라보는 나의 눈곱에
고여옵나다 뜨거운 눈물이

머리에 백발이 질어갈수록
눈물은 해피진다지만
9월의 아침
눈가에 젖어드는 이 눈물은
어저 나이타이겠습니까

어머니 가슴 파고드는 자식과 같이
조국으로 달려쳐가는 마음
이 마음에 뚫어번지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간절한 그리움의 분출입니다

생각은 깊어집니다
지켜주고 안아줄 품이 없어
이역의 찬바람에 정처없이 떠돌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흘렸습니까
그 누구도 닦아줄수 없었던
망국노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설움의 눈물을 뿌려도
그 설움 가셔줄 조국이 없었고
이역의 찬바람에 락엽처럼 떠돌아도
그 바람 막아줄 조국이 없었던
수난의 그 세월

아, 내 사는 마을에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조선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신 분은 김정일령도자이다.》고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민족사바로세우기 회장은 《대국의 압력과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에서 세계를 굽어보는 평양을 사방은 두려워한다. 세계를 저들의 지배권에 넣고 유일초대국행세를 하려는 미국도 평양의 존엄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동경하였으며 백두산력사학회 한 회원은 《이북은 건국 이래 언제한번 외압에 의해 흔들리거나 자주로선의 길에서 탈선한적이 없다. 이북은 외세의존적인 사대정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중주체의 자주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사상으로 위력하고 자주정치로 막강한 정치강국으로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공화국의 자주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한결음의 주저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하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은 자주의 궤도를 따라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고 미국의 가증되는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자주의 기치, 선군의 보검을 더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시다.

이 땅에 21세기의 새로운 조선 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퍼주시어 우리 조국이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으로 폭풍처럼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전변과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밑에 공화국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민족자주와 존엄의 기상을 만방에 높이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